

북한의 박인숙 재입북

선전 배경 및 의도와 대응방향

김 수 압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27

2006년 한국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입국해 정착해 살던 박인숙(북한매체에서는 박정숙)씨가 북한에 남겨진 아들에 대한 협박 소식에 재입북(6월 25일)한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북한은 6월 28일 내외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통해 박인숙씨 재입북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런데 6월 28일 이후에도 북한당국은 관영매체를 통하여 박인숙씨 재입북 사건을 지속적으로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당국이 기자회견이라는 이벤트와 관영매체를 통하여 대대적인 선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

첫째, 탈북자 문제가 북한체제에 미치는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규모는 이미 2만 3천 8백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양적 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질적 성격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남한에 기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내 가족을 데려오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족들은 처음부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남한행을 목적으로 북중 국경을 넘고 있다. 북한당국은 대규모 탈출사태가 동독 등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주된 요인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사회의 비참한 실상, 인권 유린 실태를 외부에 고발하는 중요한 정보자산이다. 그리고 북한 내 가족 등 연계망을 통해 남한 사회의 실상을 북한에 전파하는 역할

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규모의 양적 증가 및 질적 성격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수행하는 역할은 북한체제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부담에 대한 인식은 김정은 등장 이후 탈북자에 대한 통제정책으로 표출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 등장 이후 탈북 행위에 대한 통제와 처벌이 강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당국은 탈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탈북자 가족을 강제 추방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6월말 현재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751명(잠정)으로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40% 정도 감소한 것도 북한당국의 탈북자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 내 탈북 행위에 대한 직접 통제 강화와 함께 박인숙씨 사건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은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실상을 왜곡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탈북행위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당국은 박인숙씨 재입북 내외신 기자회견을 기획 연출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회견 내용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이와 같이 짜여진 각본에 의한 묘사와 달리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실제로 정착하는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비하여 나가고 있다.

셋째, 박인숙씨의 기자회견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이중적 태도도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탈북자에 대해 ‘민족반역자’, ‘인간쓰레기’ 등으로 지칭하면서 비난하였다.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감춘 채 남한당국에 의한 비인도적 행위의 결과 탈북자가 양산되었다는 태도로 돌변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7월 5일 조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탈북자에 대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비열한 유인, 납치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동안 ‘쓰레기’라고 규정하던 탈북자를 주민이라고 지칭하면서 남한당국에 의한 유인, 납치의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도주의를 구현하는 ‘적십자’ 조직의 담화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부각시킨 것도 남한 당국의 비인도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은 박인숙씨 입북을 김정은에 대한 이상화의 선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6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박인숙씨는 김정은의 자애로움을 일부 언급하였지만 주로 남한에서의 비참한 생활을 폭로하는데 회견내용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그런데 6월 28일 이후 북한의 관영매체는 박인숙씨가 조국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은덕으로 북한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7월 5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장군님께서서는 나의 죄많은 과거를 조금도 탓하지 않으시고 대해 같은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었다”고 박인숙씨에 대한 김정은의 은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7월 10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공화국의 품에 다시 안긴 박정숙 여성과 그 가정의 삶’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인숙씨의 집을 찾아가 박인숙과 아들 등 일가족이 김정은의 은덕 속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당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박인숙씨 사건을 김정은의 인자로움과 자애로움을 선전하는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박인숙씨 재입북 사건에 대해 북한당국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의도에 휩쓸림 없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은 남북한 통합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통합 대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을 준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통일대비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목표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지원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박인숙씨가 북한으로 돌아간 실질적 동기가 북에 두고온 아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협박이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 두고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보다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인식을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부적응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국민으로 훌륭하게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사업을 보다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